

## ‘스마트 국가(Smart Nation)’ 상상하기와 ‘사회적 가속’ 싱가포르 ‘도시 캠프(Kampung)’을 중심으로\*

조 미 혜\*\*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스마트함(smartness)’의 구현과 ‘기술의 가속’, ‘사회 변화의 가속’, ‘생활 속도의 가속’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가속’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싱가포르의 국가정책 비전인 ‘스마트 국가(Smart Nation)’와 ‘스마트 국가’ 구현을 위한 사업 중 하나인 연구 프로젝트, ‘도시 캠프(New Urban Kampung)’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본다. 싱가포르 공공주택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주택개발청(Housing Development Board)은 인구, 일, 여가, 도시 인프라 등의 현황 데이터를 수집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주거 환경 디자인 구상에 활용하고자 한다. 이렇게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를 활용한 주거 환경 디자인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된 연구가 ‘도시 캠프’이다. 주택개발청 주도하에 민간 주체들(대학, 기업 연구소)이 협업하여 이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저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참여하였다. ‘도시 캠프’은 큰 틀에서는 싱가포르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 국가’의 도시 환

\* 본 논문은 ‘도시 캠프(New Urban Kampung Research Program L2NICTDF-1-2017-4)’ 연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싱가포르 주택개발청과 함께 진행되었고 싱가포르 국가 개발부, 국립연구재단, 총리실의 지원을 받았다. 논문에 표현된 모든 의견, 조사 결과, 결론 또는 권장 사항은 저자의 견해이며 주택개발청, 국가개발부, 국립연구재단 및 총리실의 견해를 반영하지 않는다.

\*\* 성공회대학교 사회융합자율학부, mihyecho@skhu.ac.kr

경 부분에 속하며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스마트 도시 (smart city)’의 싱가포르식 해석 및 구현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도시 캄퐁’의 연구 결과는 향후 공공주택디자인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완결된 연구 결과의 적용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연구 진행 과정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첫째 싱가포르 공공주택이 왜 싱가포르적 삶의 방식이 결정되는 핵심 장소인지 살펴본다. 둘째 ‘도시 캄퐁’의 상위 비전인 ‘스마트 국가’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검토한다. 셋째 공공주택단지에서 실시된 인터뷰 내용에서 드러난 ‘가속적 시간’의 경험을 논의하고 이 경험이 ‘도시 캄퐁’과 ‘스마트 국가’의 상상과 구현에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하는지 살펴본다.

**주제어:** 싱가포르, 스마트 국가, 사회적 가속, 도시 캄퐁

## I. 서론

본 논문은 ‘스마트함(smartness)’의 구현과 ‘기술의 가속’, ‘사회 변화의 가속’, ‘생활 속도의 가속’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가속’(Rosa 2003; Rosa et al. 2017; Rosa 2020)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싱가포르의 국가정책 비전인 ‘스마트 국가’(Smart Nation)와 ‘스마트 국가’ 구현을 위한 사업 중 하나인 연구 프로젝트, ‘도시 캄퐁’(New Urban Kampung)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본다.

싱가포르 정부는 학문간 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국가 전체를 도시 실험실(urban lab)로 삼아 다양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Jie 2017). 싱가포르 공공주택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주택개발청(Housing Development Board)은 1960년대부터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대규모 공공주택단지를 개발해왔다. 최근 1980-90년대 조성된 오래된 단지의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고령화, 산업 구조

변화, 기후 변화가 주거 환경에 미칠 영향 및 주택 수요 변화가 주거 환경에 미칠 영향이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주택개발청은 인구, 일, 여가, 도시 인프라 등의 현황 데이터를 수집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주거 환경 디자인 구상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를 활용한 주거 환경 디자인을 모색하기 위해 실행된 연구가 ‘도시 캠프’ 프로젝트이다. 캠프(kampung)은 말레이어로 시골 마을을 의미한다. 싱가포르에 더 이상 캠프는 존재하지 않지만 캠프는 마을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성이나 생활 방식 등 문화적이고 상징적 의미를 포함하여 은유적으로 쓰이고 있다.

‘도시 캠프’은 주택개발청 주도하에 민간 주체들(대학, 기업 연구소)이 협업하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었고 저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주택단지 조건에 적합한 삶의 질 지표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 연구는 큰 틀에서는 싱가포르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 국가’의 도시 환경 부분에 속한다. ‘스마트 국가’는 2014년 싱가포르 정부가 앞으로의 국가 발전 방향성을 명시한 정책 비전이며<sup>1)</sup>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스마트 도시(smart city)’의 싱가포르 식 해석 및 구현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 결과는 향후 공공주택 디자인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완결된 연구 결과의 적용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연구 진행 과정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마트 도시(smart city)’가 무엇인지, 어떻게 구현하는 것인지, 구현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 기준이나 개념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Angelidou 2014; Anthopoulos 2016; Cocchia 2014;

---

1) Ng Chee Khern. (연도미상). “Digital Government, Smart Nation: Pursuing Singapore's Tech Imperative.”  
<https://www.csc.gov.sg/articles/digital-government-smart-nation-pursuing-singapore's-tech-imperative#notes> (검색일:2022.09.25.)

Grossi and Pianezzi 2017; 박준, 유승호: 2017). 싱가포르가 시도하고 있는 도시와 캠프의 조합 자체가 다양한 방식의 스마트 도시 상상하기가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스마트 도시의 테크놀로지의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스마트 도시란 방대한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연결 조정하여 시민들에게 더 편리한 기반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이다(Carvalho 2015).<sup>2)</sup> 스마트 도시를 비판적인 측면에서 고찰하는 연구자들은 스마트 도시를 기업이 도시 경영을 맡아가는 작업(Brenner and Theodore 2002; Hollands 2008; Peck and Tickell 2002) 또는 복잡한 도시문제를 기술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본다(Kitchin 2015). 반면 행위자 네트워크의 관점의 연구자들은 스마트 도시를 행위자(actor), 이념(ideology), 기술(technology)이 상호 네트워크로 연결된 결합체(asssemblage)로 보고, 스마트 도시 만들기를 인간, 사물, 기술 사이의 참여와 개입이 이루어지는 정치 과정으로 해석한다(김한준 2017; Shelton et al. 2015). 이처럼 스마트 도시의 개념, 실현 방법, 평가 기준 등이 논의 중이지만, 스마트 도시는 이미 많은 곳에서 도시 기획의 주요 개념(concept)으로 채택되어 도시 경영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를 강화시키고 있다(Ahas et al. 2015; Barns 2018; Granier and Kudo 2016; Kitchin 2015). 이러한 디지털화 속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는 무엇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사회학자인 카스텔(Manuel Castells)은 연구 작업이 정치적임을 강조하는데 데이터를 생성하고 지표를 만드는 과정이 상충하는 사회적 이해를 분류하고 공통의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나가는 작업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1983). 가령 그는 ‘삶의 질’ 연구를 예로 들었는데,

2) 가령 최첨단 센서로 환경 변화 (소음, 빛의 밝기, 습도, 온도, 바람)를 자동 조절하거나, 에너지의 생산, 흐름, 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장소를 늘 추적 관찰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일이다.

추상적 개념인 ‘삶(life)’과 ‘질(quality)’을 측정 가능한 지표로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곧 일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삶이 벌어지고 있는 조건을 바꾸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Castells 1983). 경험 연구의 해석적이고 실천적인 양면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사회학자 로자(Hartmut Rosa)는 비판적 연구의 핵심은 ‘올바른’ 질문을 던짐으로써 사람들의 경험적 탐구를 유발하는 것이라 강조한다. 그 대표적 질문이 “왜 우리는 좋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이다(Rosa 2020: 6).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현실의 상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게 되고 결국은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를 숙고하게 된다(2020: 5). 카스텔과 로자는 사회적 행위자가 인식하는 ‘ 좋음’에 대한 관념을 기준으로 잡고 무엇이 그 실현을 어렵게 만드는지 분석하는 것이 경험적 연구의 방법론임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방법론이 ‘도시 캠프’와 같은 도시 연구에 활용되어 올바른 질문 설정(무엇을 왜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 적절한 사회 현상 분석(다양한 데이터간의 유의미한 상관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유용한 기술의 활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스마트 도시 구현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위이기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삶은 무엇인지 그러한 삶의 추구를 어렵게 하는 사회적 경험은 무엇인지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험적 연구와 개념 탐구를 추구하는 ‘도시 캠프’ 프로젝트는 ‘융합’으로서의 ‘스마트 도시’ 만들기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융합은 그 참여자로 하여금 지식 탐구 방법들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통합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통합된 탐구 방식은 타당한 설명을 제공하는지 묻게 한다.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은 지식 체계에서 벌어지는 가치 추구와 지식 추구의 영역 분리를 문제적으로 보았다(월러스틴 2004). 이러한 분리된 지식 체계로는 복잡한 정치경제적, 기술적, 생태적 문제들을 종합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없으리라 보고 지식 체계의 융합과 문제 해결을 강조하였다(윌러스틴 2004). 싱가포르 정부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스마트 국가’ 건설을 위한 융합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중앙집권적 융합은 정책의 효용성을 최대화하려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이며 이 점이 오히려 공공의 상상력을 저해시킬 것이란 우려도 있다(Jie 2017). 저자도 이러한 우려에 공감한다. 그러나 본 연구가 강조하는 바는 ‘도시 캉풍’ 논의를 통해 융합으로서의 ‘스마트 도시’ 만들기를 고찰해 보는 것이다.

본 논문은 위에서 논의한 방법론과 문제 의식에 기반하여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싱가포르 공공주택의 역사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싱가포르 공공주택이 왜 싱가포르적 삶의 방식이 결정되는 가장 핵심적인 장소인지 논의한다. 주택개발청이 이끄는 연구 프로젝트의 상위 비전인 ‘스마트 국가’를 검토하고 이 비전과 캉풍이 어떠한 맥락에서 연결되어 있는지 논의한다. 캉풍이 전통적인 사회 결속의 상징에서 확장되어 시민들의 시간의 경험 특히 근대 사회의 빠른 변화와 생활 속도의 가속을 성찰하는 표현으로도 해석되고 있음을 살펴본다. 둘째, 이러한 가속적 시간의 경험과 삶의 질 논의를 심화시키기 위해 공공주택단지 거주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인터뷰 결과를 분석한다. 인터뷰는 융합 연구의 일부로서 싱가포르 공공주택단지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여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생성을 목적으로 실행되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인터뷰 대상자가 일상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 즉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와 실제로 본인의 가치를 반영하여 일상을 꾸려 나가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응답자들이 ‘가족’과 ‘건강’을 삶의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여기지만 시간이 부족하여 가족과 건강에 관련된 행위를 하기 어렵다고 밝힌 점을 주목한다. 셋째, 시간 경험의 관점에서 삶의 질을 고찰해보기 위하여 로자(Rosa

2003; Rosa et al. 2017; Rosa 2020)가 ‘기술의 가속’, ‘사회 변화의 가속’ 및 ‘생활 속도의 가속’으로 설명한 ‘사회적 가속’의 개념을 살펴본다. 본 논문은 싱가포르의 사례 연구를 통해 스마트 도시 연구에서는 비교적 덜 다루어진 시간 개념을 논의하여 ‘스마트함(smartness)’의 사회적 의미 및 유의미한 지표와 데이터 생성에 의한 사회적 이해관계 조정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 II. 공공주택, 도시 캠프, 스마트 국가

싱가포르는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한 이래로 거주 환경의 ‘고층화(high-rise)’, ‘집적화(high-density)’, ‘환승화(transit-oriented)’를 추구하며 토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주택 공급을 지속해 왔다(Chong 2018; Teo and Kong 1997). 공공주택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전에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캠프에 거주하였으며, 민족에 따라 캠프의 구조와 모습이 달랐다 (Chang 2000). 말레이계의 캠프는 마을 입구나 중앙에 열린 공간이 있었으며, 남성이 모이는 곳과 여성이 모이는 공간이 나뉘어져 있었고 각각의 집들 사이에 여유 공간이 있었다(Chang 2000). 중국계 캠프는 집들이 옆으로 늘어져 있었고 집과 집 사이에는 담장이 있었다(Chang 2000). 코피티암(kopitiam)이라 불리던 간단한 음료와 음식을 파는 동네 식당은 모든 캠프에 존재했다. 코피티암은 싱가포르에만 있던 것이 아니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도 존재한다. 코피(kopi)는 말레이어로 커피를 뜻하고 티암(tiam)은 호키엔 방언으로 상점을 뜻한다. 코피티암은 길거리에 접하여 있고 실내와 실외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었다. 공공주택이 보급되면서 전통적 캠프와 코피티암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의 공공

주택 단지나 길거리에도 지상층의 열린 공간에 호커 센터라 불리는 음료와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이러한 장소는 급격한 도시화를 겪은 싱가포르에서 시간의 연속성을 상징해주는 공간이기도 하다. 현재는 전체 시민의 약 80%가 공공주택에 거주하고 있고<sup>3)</sup> 따라서 주택 정책이 싱가포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싱가포르는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 그 외 민족이라는 네 개의 ‘공식민족’으로 분류된 시민들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이다. 공공주택단지는 다양한 민족과 계층으로 이루어진 거주민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교육, 편의, 복지, 상업, 병원, 여가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시설을 갖춘 대규모 공공주택단지를 타운(town)이라고 한다. 하나의 타운 안에는 동네(neighborhood)라 불리는 단지가 여러 곳 있고, 하나의 동네는 여러 개의 구역(precinct)으로 구성된다 (타운-동네단지-구역이라는 세 단계로 구분된다). 보통 한 구역 안에 400에서 800가구가 거주한다. 구역은 공공주택단지 디자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스케일이다(Chong 2018). 구역 안에 놀이터, 상점, 광장과 같은 공공장소가 있으며, 각 구역만의 특징을 나타내는 구조물도 있다.<sup>4)</sup>

특정 민족이 특정 주택단지에 모여 거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 <https://www.hdb.gov.sg/cs/infoweb/about-us/history> (검색일:2021.11.20.)

4) 공공주택단지가 타운, 동네, 구역으로 위계적이고 인위적으로 구성되어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제한하여 사회적 공간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을 방해한다는 비판도 있었다(Chua 1997; Hee and Ooi 2003; Yeoh and Kong 1995). 그러나 거주자들이 주어진 기능과 용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회적 공간을 조성하는 모습도 목격되기도 한다(Chua 1997; Chong 2018; Cho et al. 2018). 특히 공공주택 건물의 아래층은 통풍을 위하여 빈 공간(void deck)으로 만들었는데, 이 곳에서 아이들이 놀기도 하고 장례식과 결혼식이 열리기도 하며 주민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기도 한다(Chong 2018). 대규모 주택단지는 대개 복제되고 정형화된 장소성 없는 장소(non-place)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일상적 행위가 반복적으로 지속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도 생기고 정형화된 공간에도 새로운 감정과 의미가 부여되기도 한다(Gieryn 2000). 공공주택단지의 빈 공간(void deck)이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Chong 2018).

서 싱가포르 정부는 1980년대 말경 공공주택에 공식 민족별 거주민의 수를 지정하는 민족화합 정책(Ethnicity Integration Policy)을 도입하여 지금까지 실행하고 있다. 이 정책에 의거하여 ‘공식민족’ 분류에 따라 공공주택 건물과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의 비율이 할당되어 있다. 또한 공공주택단지내의 주택 거래는 민족별 거주민 비율을 지키며 이루어져야 한다. 가령 1동이라는 공공주택 건물에 할당된 중국계 거주민수 한도가 70%이고 현재 그 한도가 꼭 차있을 경우, 중국계 시민은 1동에 새로 입주할 수 없다. 모든 공공주택단지내의 거래는 이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주택 거래를 원하는 주민은 매달 첫째 날 주택개발청의 홈페이지에서 거주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sup>5)</sup>

영국의 국영방송 BBC가 주최한 심포지움에서 싱가포르의 전(前) 재정장관 산무가라트남(Shanmugaratnam)은 이러한 민족화합정책과 공공주택 거주민 비율 제한이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서구권에서는 강압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으나 이 제도가 다민족 국가인 싱가포르의 화합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The Strait Times, 2015년 5월 15일).<sup>6)</sup> 그는 인종 갈등, 테러, 혐오 등의 문제가 만연한 유럽의 대도시를 싱가포르와 비교하였다. 싱가포르 시민들이 어려서부터 같은 건물에서 살고, 같이 학교를 다니고, 동네의 놀이터에 어울려 지내며 관용과 화합을 일상에서 배워왔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즉 싱가포르의 공공주택단지의 삶의 방식이 곧 다민족 국가인 싱가포르의 삶의 방식이 된다. 싱가포르의 독립과 동시에 시작된 공공주택단지조성은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와 삶의 조건<sup>7)</sup>을

5) <https://services2.hdb.gov.sg/webapp/BB29ETHN/BB29STREET> (검색일:2022.11.15.)

6) <https://www.straitstimes.com/singapore/singapore-50-years-after-independence-forum-with-tharman-shanmugaratnam-at-st-gallen> (검색일:2022.11.15.)

7) 르페브르는 건물, 건축, 사회, 도시를 삶의 조건이라고 설명한다 (Lefebvre and Levich 1987).

획기적으로 조성했다고 볼 수 있다. 공공주택단지는 싱가포르적 삶의 방식이 형성되는 가장 핵심적 장소이다(Chua 1997; Ho and Chua 2018). 따라서 공공주택단지정책은 주거 정책을 뛰어 넘어 싱가포르 사회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싱가포르의 도시화는 1990년대 이르러 완료되었고 시민들도 공공주택의 효율성, 쾌적함, 편리함에 익숙해졌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면서 공공주택의 기능과 디자인도 향상되었다(Teo and Kong 1997). 객관적 지표를 보면 싱가포르의 삶의 질은 계속 향상되고 있다. 가령 미국 자산관리 회사인 머서(Mercer)에서 실시한 삶의 질 세계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했고 아시아 도시 중에서는 순위가 가장 높다.<sup>8)</sup> 특히 싱가포르의 생태환경적 요소를 중시하는 주택 정책과 그린(green) 정책이 삶의 질 향상에 높은 기여를 한 것으로 자체적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이미 사라져 버린 캉퐁에 대한 향수도 생겨났다. 1990년대는 싱가포르 산업자본주의 최정점의 시기였다(Chua 1997). 소비중심적이며 개인주의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비판 의식이 증가함에 따라 캉퐁이 탈개인주의적 생활 방식을 상징하게 되었고 대중적인 화제로 등장하였다(Chua 1997). 당시 정부는 캉퐁 정신(kampung spirit)을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재해석하여 고층의 건물들이 집적한 공공주택 단지에 마을 공동체를 재창조하려고 하였다(Chua 1997). 그리고 최근 다시 국가 비전에 캉퐁이 등장하였다. 2017년 발표된 인구 정책 백서에서 싱가포르 정부는 캉퐁을 재해석하여 더욱 포용력(inclusiveness)과 응집력(cohesiveness)이 강화된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회적 결속에 대한 강조는 싱가포르의 인구변화

8) 2018년과 2019년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삶의 질이 높은 도시로 선정되었으며 2020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삶의 질 조사 사업은 실시되지 않았다. Mercer's quality of living index,

<https://mobilityexchange.mercer.com/Insights/quality-of-living-rankings>

즉 고령화 대응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Jie 2017). 싱가포르 정부는 급격한 노령화에 의한 노동인력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를 받아들일 것이라 밝혔다(Strait Times, 2017년 1월 9일).<sup>9)</sup> 2016년 인구 통계에 의하면 싱가포르 전체 거주인구 중에서 시민과 시민권자를 제외한 비영주권자의 비율이 거의 30%에 달한다.<sup>10)</sup> 싱가포르처럼 모빌리티(mobility)가 고도화되고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의 구성 비율이 높은 곳에서는 사회 결속이 정치적 안정과 경제 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또한 정부는 싱가포르 시민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산업 구조 변화에 적합한 노동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재교육을 할 것이며 국가적으로는 ‘스마트 국가’로 재빠르게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Smart Nation 홈페이지<sup>11)</sup>; Jie 2017).

그러나 빠르게 변하는 사회, 국가 정책, 재사회화 과정에 대한 공개적 불만이 미디어에 등장했다. 이민자를 더 받아들이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도시가 비좁아진다는 의견이다.<sup>12)</sup> 시민들의 반응에 대응하여 싱가포르 정부는 인구 증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늘리고, 합리적인 주택 가격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

9) Calvin Cheng. 2017. “The Population White Paper - Time to revisit an unpopular policy?”

<https://www.straitstimes.com/opinion/the-population-white-paper-time-to-revisit-an-unpopular-policy> (검색일:2022.09.26.)

10) <https://www.population.gov.sg/files/media-centre/publications/population-in-brief-2021.pdf>

2021년에는 그 비율이 27% 정도로 줄어들었다. 저자는 비율이 낮아진 원인을 검토할 수 있는 다른 공식 통계를 수집하지는 못하였으나 팬데믹 시기의 국경 봉쇄 및 폐쇄적 이민 정책과 관련이 있으리라 예상한다

<https://www.straitstimes.com/singapore/jobs/pandemic-border-restrictions-may-hinder-singapores-economic-recovery-experts> (검색일: 2022.11.15.).

11) <https://www.smartnation.gov.sg/>

12) 시민들의 외국 노동 인력 유입에 대한 우려를 다룬 기사를 대표적으로 소개한다. (<https://www.straitstimes.com/opinion/the-population-white-paper-time-to-revisit-an-unpopular-policy>)

‘수직적 캠푹’, ‘고층 캠푹’, ‘도시 캠푹’ 등의 은유적 표현을 제시하며 스마트 기술과 캠푹의 재창조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설명하였다.<sup>13)</sup> 그러나 캠푹이 사회 변화 적응과 결속을 강조하는 정부 비전의 용어로 등장하자, 이미 급격한 도시화와 세계화를 겪은 일부 싱가포르 시민들은 사회 변화의 속도에 적응하는 것과 인위적인 결속의 조성에 대한 피로감을 토로했다. 캠푹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으니 그냥 그렇게 없어지게 하자는 아래의 기사가 그 대표적 예이다<sup>14)</sup>:

“(캠푹의) 사회성(sociability)이 (존재했던) 이유는... 만성 실업과 편의 시설 부족 때문이다. 독립 이전, 근대 이전의 싱가포르에는 ‘경력(career)’이라는 용어조차 없었다. 대부분의 캠푹 거주인들은 우리가 현재 비공식 경제 (informal economy)의 ‘잡일 (odd jobs)’이라고 부르는 일을 했다... 고용 기회의 부족이 코피티암을 ‘집단적 한가함’의 장소로 캠푹을 ‘공동체’로 만든 것이다... 좋지 않던 경제가 제공한 긴 여유 시간이 없었더라면 아마 그 때의 이웃들은 모두 완전한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Rice Media, 2018년 4월 8일)”

위의 기사가 물론 캠푹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대표하는 것은 아

13) 리센룽 수상은 캠푹 정신이 강해진다면 테러와 같은 외부의 위협이 싱가포르 사회에 침투할 수 없을 것이라 강조하였으며(*Straits Times*, 2017년 3월 19일) 또한 은퇴자를 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활력적 노화(active aging)를 보조할 수 있는 ‘수직적 캠푹(vertical kampung)’를 만들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싱가포르 독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캠푹 정신이 정치가들의 연설에 자주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웃과 사이 좋게 지냈던 문화가 캠푹 정신으로 비유되기도 하고(2018년 3월 문화, 커뮤니티, 청년부 장관 연설), 서로 보살피고 위협에서 구해주려는 마음이 캠푹 정신으로도 설명되기도 하였다(2018년 11월 재정부 장관 연설). 이러한 캠푹 정신으로 현재의 싱가포르가 이루어졌기에, 이 정신을 계속 이어나가 서로 함께 보살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 당부되었다(2018년 11월 재정부 장관 연설).

14) Pan Jie. 2018. “Can we let kampung spirit die in peace?”  
<http://ricemedia.co/ricemedia-can-we-let-kampung-spirit-die-in-peace> (Rice Media, 2018년 4월 8일) (검색일:2022.09.26)

니다.<sup>15)</sup> 그러나 캠평을 전근대적 사회에만 존재하는 것, 즉 “더는 유효하지 않은 것”(로자 2020, p.23)으로 보는 견해는 비전으로서의 ‘도시 캠평’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에서 밝혔듯 ‘도시 캠평’은 국가 발전 비전인 ‘스마트 국가’의 한 영역이기에 ‘스마트 국가’의 방향성이 도시 캠평의 상상과 실현 방식 설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국가 발전 비전으로서의 ‘스마트 국가’는 기본적으로 기술이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여 경제를 성장시키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Smart Nation and Digital Government Office 2018).<sup>16)</sup> 이를 위하여 싱가포르 정부는 경제, 금융, 산업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도시 일상의 디지털화를 강조하고 있다(Centre for Liveable Cities 2014; Hoe 2016; Smart Nation and Digital Government Office 2018<sup>17)</sup>). 정부는 ‘스마트 국가’는 국가 만들기의 연장이라고 밝혔다(Smart Nation and Digital Government Office 2018).<sup>18)</sup>

15) 캠평을 사람다움을 느낄 수 있는 동네로 보는 시각도 있다. Josephine Chia. 2018. “Commentary: Kampung spirit not a wish to revert to the past, but a longing for togetherness.”

<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commentary/singapore-kampung-spirit-not-a-wish-to-revert-to-the-past-10592846> (검색일:2022.09.27)

16) 인용 전문: “A Smart Nation is a Singapore where people will be more empowered to live meaningful and fulfilled lives, enabled seamlessly by technology, offering exciting opportunities for all. It is where businesses can be more productive and seize new opportunities in the digital economy. It is a nation which collaborates with our international partners to deliver digital solutions and benefit people and businesses across boundaries. As PM Lee described it at the launch of Smart Nation in November 2014, it is a nation “where we can create possibilities for ourselves beyond what we imagined possible.” (Smart Nation and Digital Government Office, Smart Nation: The Way Forward, p.1).

17) <https://www.smartnation.gov.sg/files/publications/smart-nation-strategy-nov2018.pdf>

18) 인용 전문: “Smart Nation is integral to Singapore’s next phase of nation building. Technology disruption is a global force we must confront and harness to our advantage. Developments in digital technology present opportunities for Singapore

영토가 작은 섬인 물리적 상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은 싱가포르라는 국가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난관이다(Yuen 2018). 따라서 싱가포르는 스스로를 ‘위기 국가’라고 정의내리고 국민의 적응성(adaptability)을 국가 정체성이자 생존 수단으로 삼아왔다(Yuen 2018). 스마트 도시 담론 중 스마트 도시의 구현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면서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스마트 시민(smart citizens)을 강조하는 시각이 있다(Glaeser and Berry 2006; Giffinger et al. 2007; Hollands 2008; Angelidou 2015). 이러한 시각은 사회 재생산의 동력으로서 노동력을 중요하게 본다. 이와 유사하게 싱가포르의 ‘스마트 국가’ 비전도 기술 사회와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노동 생산력을 잃지 않고 공동체와 사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도모한다고 볼 수 있다(Hoe 2016; Jie 2017; Yuen 2018). ‘스마트 국가’ 비전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자기 혁신과 변화를 꾀하는 것이 알 수 없는 미래에 대비하는 것”<sup>19)</sup>이라고 설명한다. 이런 의미에서 ‘스마트 국가’ 비전은 사회의 결속을 공고히 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일부 싱가포르 시민들이 ‘스마트 국가’ 비전에

---

to enhance our strengths, overcome our national challenges and physical limits, and build new sources of comparative advantage. Digitalisation will be pervasive, and change life as we know it. To continue to prosper and stay relevant, Singapore must embrace digitalisation and the benefits it brings. This new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will power Singapore to SG100 and beyond.” (Smart Nation and Digital Government Office, Smart Nation: The Way Forward, p.1).

- 19) 인용 전문: “Beyond delivering on the future we can foresee, Singapore must continue to push ahead in this fast-moving space, to continually innovate and transform ourselves, and strengthen our capabilities and expertise so that we are prepared for the unknown. We secure our future by strengthening the nexus between academia, industry and Government, making strategic bets in frontier technologies, and forming strong relationships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mart Nation and Digital Government Office, Smart Nation: The Way Forward, p.1).

등장한 ‘도시 캠폭’에 투사한 피로감은 ‘국가’와 ‘캠폭’이 상징하는 있는 위기 상황의 정상화(normalization)와 그러한 위기적 일상을 살아가기 위한 적응성과 결속에 대한 피로감일 수 있다.<sup>20)</sup>

나라리(Nallari)와 푸르투스(Poorthuis)는 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온라인 포럼에서 캠폭과 관련된 문구를 분석하고 인터뷰도 실시하여 캠폭에 대한 양가적 시선이 존재함을 보여준다(Nallari and Poorthuis 2021).<sup>21)</sup> 이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캠폭은 ‘일체됨’을 나타내기도 하고 반대로 ‘다양한 목소리’와 ‘문화다양성(multi-culturalism)’을 의미하기도 한다(Nallari and Poorthuis 2021).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인터뷰 응답자들이 캠폭을 정부가 강조했던 상부 창조하는 이웃이나 공동체적 관계가 아닌 가족 범위의 관계로 해석했다는 것이다(Nallari and Poorthuis 2021: 440); “캠폭적 생활 방식”이 가족을 돌보는 것으로 “캠폭 정신(spirit)”은 명절 때 가족을 찾아가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웃과의 친밀한 삶이 벌어지는 공간으로서의 캠폭은 과거의 일이며 지금은 존재할 수 없고 캠폭 정신은 정부의 의제일 뿐이라는 해석도 있었다(Nallari and Poorthuis 2021). 이들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인터뷰 응답자들이 캠폭의 의미를 관계성 즉 ‘개인주의적’과 ‘공동체주의적’이라는 대비 구조를 통해 해석하기보다는 ‘일이 적었던 전근대(pre-modernity, 과거)’와 ‘일이 많았던 근대(modernity, 지금)’라는 일과 시간성의 구분이라는 틀에서 캠폭과 캠폭 정신을 ‘과거의 것’, ‘근대에 위협당하며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했다는 것이다(Nallari and Poorthuis 2021: 441). 앞서 소개된 “캠폭은 그냥 사라지게 두자”라는 논지의 기사도 캠폭 정신과 캠폭

20) 인용 전문: “Smart Nation will also involve every person and organisation, taking action to learn about and adopt digital technologies.” (Smart Nation and Digital Government Office, Smart Nation: The Way Forward, p.1).

21) 이들은 뉴스와 소셜 미디어에서 캠폭에 관련된 문구를 찾고, 이 문구들을 49개의 단답 서술문으로 정리한 다음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거주자 37명에게 본인의 의견에 부합하는 정도에 따라 분류하게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풍은 ‘독립 이전, 근대 이전의 싱가포르’의 사회, 즉 ‘실업과 비정규적 고용상태로 시간이 풍족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본다(Rice Media, 2018년 4월 8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싱가포르 시민들이 캄풍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전근대와 근대라는 시간성의 차이와 그에 따른 일과 사회적 경험의 차이를 논의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일이 적었고 시간이 많았고 그래서 타인과 교류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표현은 ‘지금은 일이 많고 시간이 없고 교류하기 어렵다’는 표현과 같다. 기본적으로 ‘도시 캄풍’ 비전은 고도로 분화된 산업 사회의 사회 결속을 상상하고 그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비전이 공공주택의 방향성으로 채택된 배경은 전(前)재정장관 산무가라트남이 강조했듯이 공공주택단지, 즉 공간이 삶의 조건이자 삶의 방식이 재생산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들이 ‘도시 캄풍’이라는 수사적 조합에 보인 반응은 ‘도시 캄풍’을 상상하는 비전에 한 가지 중요한 삶의 조건과 방식이 간과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바로 산업 사회의 ‘시간의 경험’, 특히 일과 생활 속도 가속의 경험이다. 따라서 저지는 인터뷰 분석을 통해 공공주택 거주자가 일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행위자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행위를 할 수 없다면 그 상황은 무엇인지를 시간의 경험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 Ⅲ. 일상과 시간의 경험

주택단지 주변에 있는 상점가와 공원에 설치해 놓은 센서에 늦은 밤까지 사람들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면 이 데이터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까? 시민들이 여가 시간을 즐기며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일과 삶의 균형(work-and-life balance)이 깨진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일까? 디지털 자료와 추적 자료(trace data, 개인이 컴퓨터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고 남게 된 자료)가 인터뷰나 서베이와 같은 방식으로 취합된 자료보다 데이터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오류가 적어 사회 현상 분석에 유용하다고 여겨지기도 한다(Hampton 2017). 그러나 추적 자료 분석이 사회 연구의 고전적 질문인 인간 행위의 목적과 동기에 대한 분석을 전적으로 대신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인터뷰 분석은 공공주택에서 거주하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좋은 삶을 무엇이라 여기는지 주관적 해석을 알아보고 이러한 분석이 스마트함(smartness)을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는 것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논의한다.

저자가 소속된 연구팀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에 이르는 5개월 동안 총 3곳의 공공주택단지에서 직접 방문하거나 모집 광고를 통하여 총 80명을 대상으로 삶의 질(quality of life)<sup>22)</sup>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3곳의 주택단지는 주택개발청이 개발 시기에 따라 선정하였고 인터뷰는 20대 이상의 공공주택단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3곳의 주택단지는 비교적 최근인 2010년도 이후에 본격적으로 조성된 곳, 1980년대부터 조성되어 큰 변화 없이 지금까지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곳, 이 두 단지의 중간 성격을 보이는 곳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 기간에 수집된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여 질문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2차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하여 인터뷰는 1차와 2차로 나뉘어져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1차 연구 기간에 수집된 인터뷰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sup>23)</sup> 인터뷰 대상자의 구성은 고른 연령

22)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1950년대 미국이 급속한 부의 증대를 이루면서 사회가 안정되고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 기대했으나 오히려 범죄가 증가하는 현상을 경험하면서 삶의 만족이 어디에서 오는지 측정하기 위해 시작되었다(Campbell et al. 1976; Wright 1982).

23) 2차 인터뷰는 2019년 10월에 완료되었다. 2020년에 발생한 팬데믹의 영향으로 대면 접촉을 통한 연구 자료 수집이 어려웠기 때문에 2차 인터뷰 시기 이후에는 새로

분포를 확보할 수 있는 점에 초점을 두었다. 인터뷰 대상자에게 ‘도시 캠프’ 프로젝트의 연구 주체 및 취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인터뷰를 실행하였다. 인터뷰 참가자는 모두 싱가포르 시민이며 7명은 귀화 시민이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42.6세이며 가장 나이 어린 참여자는 21세, 가장 많은 참여자는 76세였다. 남성과 여성 비율은 40:60이었다. 약 63%의 참여자가 기혼 상태였으며 31%가 비혼 상태였다. 시간제 근무 및 자영업을 포함하여 일을 하고 있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56%를 구성한다. 전업 주부라고 보고한 참여자의 비율은 25%, 학생이라 보고한 비율은 11%이다. 인터뷰 시간은 1회당 40-60분 정도였으며 내용은 모두 응답자의 동의하에 녹음되었다.

‘삶의 질’은 때때로 행복, 웰빙, 삶의 만족으로 설명되기도 하고, 삶의 목표, 기대에 대비하여 현재의 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WHO). 인터뷰 연구의 목표는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단지 생활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삶의 질 측량을 위한 지표 생성이며 질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부분은 참여자의 삶에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그 다음은 좋은 삶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일상생활의 걱정거리나 문제점은 무엇인지, 마지막은 거주 환경 (living environment)에서 향상되기를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질문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자가 직접 밝히는 삶의 중요한 분야 혹은 영역을 알아보기 위하여 예시어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어려움을 느끼는 참가자에 한하여 보여 주었다.<sup>24)</sup> 본 논문에서는 여러 문항 중 공공주택거주자 즉 행위자가 일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행위

은 내용을 덧붙이기 어려웠다.

24) 어려움을 느끼는 인터뷰 참여자에 한하여 삶의 7가지 영역을 제시해 주고, 그 안에서 인터뷰 참여자가 중요시 여기는 영역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할 것을 요청하였다. 7가지 영역은 가족 (family), 건강 (health), 생활 환경 (living environment), 물질적 여유 (material wealth), 이웃과의 관계 (neighborliness), 자기 개발 (personal development), 정치운영 (governance)이다.

를 할 수 없다면 그 상황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인터뷰는 여러 명의 연구자가 영어로 진행하였으며, 본 논문에 사용된 인터뷰 내용만 저자가 한국어로 직접 번역하였다.<sup>25)</sup> 저자는 동일한 인터뷰 자료로 삶의 질에 대한 논문도 작성하였음을 밝힌다. 지금까지 싱가포르에서 실시된 삶의 질 연구 결과를 보면 싱가포르인들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가족과 건강이다(Seik 2000; Tan et al. 2006; Tambyah and Tan 2018). 본 인터뷰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총 80명 중 21명이 가족을, 23명이 건강을 일상적 삶의 중요한 영역으로 선택하였고 25명의 인터뷰 참가자는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았다.<sup>26)</sup> 본 논문도 응답자가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선택된 가족과 건강 중심으로 분석한다.

가족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선택한 응답자들은 대개 가족에게 받는 감정적 정신적 지지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함을 지적했다. 몇몇 응답자들은 삶에 스트레스를 주는 영역은 일(work)이고 일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는 것이 가족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다음과 같은 응답이 대표적인 예이다.

감정적 지지를 해주는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집에 돌아와 가족과 친구들을 보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행복해집니다. (비혼의 20대 여성)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선택한 응답자들에게 가족 영역에서 무엇이 어려운 점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일을 해야 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가족을 돌보거나 함께 보낼 시간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많았

25) 인터뷰 자료는 모두 아카이빙 되었으며 개별 연구자는 별도 분석과 집필이 가능하다(단 연구 자료의 저작권 및 보유 기간에 대한 계약 조건을 지켜야 한다).

26) 25명의 응답자가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잘 모르겠다, 생각해 본적이 없다’와 같이 구체적인 영역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1명은 부정확한 정보로 인하여 통계에서 제외하였다.

다. 이렇게 시간의 부족을 경험할 때 가족과 일이라는 두 영역이 갈등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응답자들은 이 갈등 관계를 풀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시간을 ‘산다(buy)’라는 표현이 여러 상황에서 등장했는데 시간을 희소한 원자재로 여기고 돈으로 그 원자재를 구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사 노동자를 고용해서 가족과 식사를 하거나 산책할 시간을 확보한다거나, 빠른 운송 수단을 사용하여 출퇴근 시간을 줄이거나, 직장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가서 출퇴근에 들어가는 시간을 ‘사서’ 그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이다.

돈을 더 내고 시간을 벌려고 하고 있어요. 늘 택시앱을 사용합니다. (결혼한 30대 여성)

돈으로 시간을 사는 것 외에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해결책은 ‘자유 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아래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 가족은 대개 9시쯤에 집에 도착하고 오자마자 애들을 재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일을 합니다. 대개 잠자는 시간은 12시에서 2시 사이입니다. 자유 시간의 유무로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 아이가 있잖아요, 정말 자유 시간은 거의 없어지는 거죠. (결혼한 30대 남성)

시간을 구입하거나 자유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두 영역간의 갈등을 해결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업을 바꾸거나 일을 그만 두기도 한다.

원래는 간호사인데 가족을 돌봐야 하는 사정으로 직업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하고 오면 시간이 없어 늘 고군분투합니다. (결혼한 30대 여성)

저와 남편이 일하느라 너무 바빴기 때문에 아이를 갖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당시 일을 그만 두고 아이를 갖기로 결정한 상태) (결혼한 30대 여성)

저랑 아내는 정말로 스트레스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돈이 적어도 상관없어요. 일을 적게 하고 돈을 적게 버는 게 나아요. 대신에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누립니다. (결혼한 30대 남성)

몇몇 응답자들은 시간이 없음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이며 가족과 친구와의 사회적 관계, 가령 이웃 공동체를 위한 시간이 없다고 전했다.

우리 집은 꼭 호텔같아요. 밤에 체크-인하고 아침에 체크-아웃하는 것만 같아요. 요즘 누가 그렇게 시간이 있나요? (비혼의 30대 여성)

가족이 제 시간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웃과 어울릴 시간이 없습니다. 일도 하고 있고, 부모님은 나이가 꽤 많으시고, 아이들도 있고, 정말이지 이웃과 보낼 시간이 없네요. (결혼한 60대 여성)

이곳 (공공주택단지) 로비에 게시판이 있잖아요. 가끔 보면 여러 행사가 있으니 사인하고 커뮤니티 센터로 오라고 적혀있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시간이 생기면 가족을 챙겨야 해서 (갈 수 없죠)... (결혼한 30대 여성)

제 현재 라이프 스타일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이 있고 버스를 타면 닿을 수 있고, 그걸로 족합니다. (결혼한 30대 여성)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쇼핑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집근처에 있는 것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부모님도 매일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정말 적습니다. 저녁 먹는 시간뿐이에요. 그래서 집 주변에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는 게 편리해요. (비혼의 20대 여성)

애 둘을 데리러 오후 7시 45분에서 8시 정도에 갑니다. 우리 모두가 시간을 함께 조금이나마 보내기 위해서 저녁을 사먹습니다. 스낵도 되고 간단한 음식도 되고요. (결혼한 30대 남성)

가족이 함께 있기 위해 주로 쇼핑을 같이 하던지 식사를 하러 가요. (결혼한 40대 여성)

응답자들은 가족 (family)과 일 (work)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였는데, 일은 주로 임금 노동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무엇인가에 대답한 55명의 응답자 중에서 물질적 부와 돈을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선택한 사람은 한 명이었다. 그러나 가족의 중요성, 가족과 함께 있거나 이웃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의 부족함은 일과 연관되어 표현되었다. 일상이 일(work)과 일이 아닌 영역(non-work)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전자는 개인이 조절할 수 없는 영역으로 후자는 개인이 선택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영역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을 ‘돌봄(care)’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가족이 일이 아닌 영역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응답자들이 가족과 일을 별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돌봄’이 담당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재생산의 측면을 간과하고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재생산을 개인의 책임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흥미롭게도 건강을 일상의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선택한 응답자들도 가족을 선택한 응답자들과 비슷한 양상으로 건강의 중요성을 서술하였다. 일로 인한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며 일을 지속하기 위해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건강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스트레

스 조절과 정신적 감정적 건강이 자주 언급되었다. 아래의 인터뷰 내용은 대표적 사례이다.

일이 주는 압력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해야 합니다. (결혼한 60대 여성)

하루 종일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신 건강이 중요합니다. (비혼의 30대 여성)

건강하지 못하면 가족을 돌볼 수 없고 오히려 가족의 짐이 돼요. (결혼한 30대 남성)

제가 집의 가장입니다. 제 자신을 잘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혼의 40대 여성)

응답자들은 대개 손수 요리하여 식사하는 것과 공원이나 야외 공간에서 몸을 움직이며 활동하는 것이 건강한 삶의 방식이라고 언급하였는데, 가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요리할 시간과 운동할 시간이 부족함을 일상에서 겪는 어려운 점이라고 했다.

정말 시간이 없어요. 남편은 늦게 집에 오고 애들을 밤늦게 데리고 밖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함께 수영을 배우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요. (결혼한 40대 여성)

우리는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어요. 이제 애들이 좀 컸고 집주변에公園으로 연결된 곳이 있어요.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결혼한 30대 여성)

전에 일을 할 때는 시간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일을 하게 되면 점심도 저녁도 밖에서 사먹어야 되죠. 건강하지 않잖아요 저에게도 애들에게도. 그래서 (일을) 그만 두었고 손수 요리를 합

니다. (결혼한 30대 여성)

위의 인터뷰는 대표적 예시로서 선정된 것이며 응답자들은 건강한 생활 방식 (life style)을 손수 요리한 음식을 먹고 야외에서 걷거나 운동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시간 부족으로 인하여 요리하고 걷거나 운동하는 것을 규칙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여 요리를 못한다던지 녹지, 공원, 스포츠 경기장 등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동을 못한다는 언급은 거의 없었다. 싱가포르 시민들은 이미 도시 운영이 효율적이고, 주택 보급률이 높고,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에 거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시의 기반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나 개선의 요구에 관심이 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응답자들이 ‘요리’, ‘식사’, ‘걷기’로 표현한 것이 무엇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인터뷰 응답자의 평균 연령이 42세임을 감안하면 청년층도 요리, 식사, 걷기 등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경제 사회 활동이 활발한 중년층에서 이러한 응답이 나온 것은 주목할 만하다. 시간이 부족하여 요리하지 못하고 걷지 못한다는 것은 평범하고 새로운 것이 없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평범해 보이는 인터뷰 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가? 서두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람들이 무엇이 좋고 중요한지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러한 상태를 야기하는 조건을 분석하는 것이 스마트 도시 구현의 궁극적 목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 평범한 비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 점을 주목하여 다음 장에서 ‘사회적 가속’의 개념을 살펴보고 ‘도시 감풍’을 구현하기 위하여 실체화 시켜야 할 ‘스마트함’은 무엇인지 논의한다.

#### IV. 사회적 가속과 ‘스마트함 (smartness)’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마트 국가’ 비전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자기 혁신을 꾀하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여 사회의 변화 속도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위기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뷰 자료에 의하면 사람들은 일상에서 가족과 요리하고 먹고 몸을 움직이는 정서적 감각적 경험을 통해 건강함을 느끼는 것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으나 요리와 걷기를 제대로 할 시간이 없다. 사람들이 직접 요리하고 걷는 행위에 가치를 부여한 것은 일상의 속도를 느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속도를 의식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Mayer and Knox 2009; Parkins 2004; Pink 2009).<sup>27)</sup> ‘도시 캠프’, 즉 ‘도시’와 ‘캠프’의 조합이 궁극적으로 산업 사회의 사회적 관계 혹은 연대를 구하는 작업이 되려면 서로 다른 속도를 의식하고 조정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고찰해야 할 것이다.

27) 이미 많은 도시에서 속도 늦추기를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슬로우 도시 (slow city, citta lente) 운동이다. 1999년 이탈리아 투스카니 지방의 여러 도시의 시장 및 지역장이 모여서 슬로우 도시 논의를 시작했다. 곧 다른 도시들도 슬로우 운동에 참여하면서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방 고유의 전통, 음식, 미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Pink 2009). 주목할 만한 점은 슬로우 도시 참가도시들이 기술 활용의 방식에 대하여 논의했다는 것이다. 참가도시들은 기술은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유연한 리듬을 느끼게 하고, 더 평화로운 삶의 방식을 만드는 것에 그 활용의 초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Pink 2009). 더 나아가 기존의 도시 인프라와 서비스의 측량에 초점을 둔 삶의 질 측정 지표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슬로우 도시 헌장문(Charter of the Slow City)도 만들었다(Mayer and Knox 2009). 슬로우 도시 헌장문은 기본적으로 환경 보호, 지속가능한 개발, 성찰적 기술의 이용, 지방 경제, 교육의 분야들을 고찰하여 삶의 질의 기준을 세울 것을 제안하고 있다(Mayer and Knox 2009): 가령 계절의 변화를 잘 느낄 수 있는지,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재료와 음식이 있는지, 걸어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등으로 삶의 질을 측정한다.

로자(2003)는 근대성을 이해하고 현재의 사회적 경험을 더 잘 분석하기 위해 ‘사회적 가속(social acceleration)’이라는 개념의 이해와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사회적 가속’이란 ‘기술의 가속(technological acceleration)’, ‘사회 변화의 가속(acceleration of social change)’, ‘생활 속도의 가속(acceleration of the pace of life)’을 포함한다(Rosa 2003; Rosa et al. 2014; Rosa 2020); 기술의 가속은 교통, 통신, 생산에 있어서 목표 지향적 과정이 의도적으로 점점 빨라지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가속을 의도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직이나 관리 형태도 기술 가속에 포함된다.

사회 변화의 가속은 경험과 예상이 가능한 시간인 현재가 수축되는 것을 말한다. 로자는 코젤렉(Koselleck)과 뤼베(Lübbe)의 과거, 미래, 현재 개념을 차용하여 과거란 더는 유효하지 않은 것, 미래란 아직 유효하지 않은 것, 현재는 경험지평과 예상지평이 만나는 시간 구간으로 해석한다(Rosa 2020). 로자에 따르면, 경험적으로 우리는 현재라 불리는 구간에서 과거의 경험에 의지하여 행동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으며 사회 변화의 가속이란 경험과 예상이 공존하는 현재가 점점 줄어드는 경험을 말한다(Rosa 2020, pp.26-27); 일상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이 빠르게 소용없게 되고 세대의 교체보다 직업의 교체가 더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현재에 근거하여 삶에 대한 예측과 방향성을 설정하기 더 어려워지는 것이 사회 변화 가속의 한 예이다.

생활 속도의 가속은 정해진 시간 단위 혹은 단일한 시간 단위에서 행위나 경험의 사건들이 늘어나는 것인데 이는 더 적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하려는 자본주의경제의 근본 원리인 추가 이윤의 논리에 따른 결과이다(Rosa 2020, pp.26-27); 한 단위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하려는 속성은 일상생활에서 식사, 잠, 산책, 놀이, 대화 등의 행위 단위에 사용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거나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

는 행위(인터넷을 보며 요리도 하고 전화 통화도 하는 것)로 나타난다. 이러한 생활 속도 가속의 경험은 결국 “시간의 궁핍”으로 여겨지게 된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사람들은 시간을 점점 더 희소해지고 더 비싸지는 “원자재”처럼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시간이 희소해진다는 경험”은 사람들로 하여금 점점 더 조급한 마음을 갖고 시간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한다. 기술의 가속으로 생산이나 재생산, 교통과 통신에 드는 시간이 줄어들어도 왜 시간의 궁핍과 시간의 압박을 느끼는가? 로자(2003; 2020)는 시간의 부족을 느끼는 이유는 근대 사회의 자원의 분배 방식이 경쟁에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자원 분배의 정당성이 성과의 차별화에 있기 때문에 늘 성과 협상에 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가속과 시간 절감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한편 그는 “좋은 삶”에 대한 사회적 의미도 시간의 궁핍을 느끼게 한다고 설명한다(Rosa 2020: 39-40); “좋은 삶”이 “풍부함”, “충만함”, “실현되어짐”으로 해석되어 삶의 질을 측정하는 기준이 “경험의 총합”, “최대한 계발된 역량”, “가능성의 실현”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고 오히려 이런 기준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빨리 더 많은 행위를 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사회적 가속(acceleration)이 지금까지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로 기능적 감속(deceleration)이 존재하고 있음을 강조한다(Rosa 2020: 51); “법, 민주주의, 산업적 노동 체계”와 “제도화된 근대인의 생애 및 이력의 유형과 가족제도”와 같은 장기적 가속에 필요한 안정된 틀이 사회적 가속(기술, 사회 변화, 생활 속도의 가속)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사회적 가속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본다. 그는 사회의 기능적 감소를 맡았던 근대의 제도와 체계들이 1980년대 이후로 급속히 와해되어 사회의 여러 영역들(경제, 사회, 과학, 정치, 문화)간의 연결과 조정이 틀어졌다고 진단한다(Rosa et al. 2017). 따라서 안정화

(stabilization)에 기반한 역동성(dynamism)이 밀고 왔던 사회적 가속이 더 이상 안정적일 수 없다는 것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osa et al. 2017). 로자는 현재를 후기 근대로 규정하고 근대의 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시간 규율이 근대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으로도 덜 다루어지고 탈정치화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공간의 탈정치화와 근대성을 질문했던 르페브르(Henri Lefebvre) 역시 근대인의 삶을 분석하기 위해서 ‘시간성(temporality)’을 고찰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일상의 반복이 근대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고찰한다(Lefebvre and Levich 1987). 로자가 표현했던 ‘역동적 안정화(dynamic stabilization)’와 비슷한 맥락으로 르페브르도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여러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되고 있음이 “거의 마법같다”고 표현한다(Lefebvre and Levich 1987: 10): “일상은 동시에 작동하는 여러 시스템을 한꺼번에 담아내고 있다. 법, 계약, 교육, 재정, 치안을 아우르는 각기 다른 시스템이 반복적으로 늘 돌아가는 장이 일상이다.” 르페브르는 일상의 반복을 두 가지 다른 성격을 가진 반복으로 구별한다(Lefebvre and Levich 1987: 10). “밤과 낮, 활동과 휴식, 배고픔과 만족, 삶과 죽음이 반복되는 순환적인 반복”이 있고, “일의 영역에서 주로 벌어지는 소위 합리적 반복”이 있다. 르페브르가 설명하는 합리적 반복이란 무엇인가를 생산하고 그 생산된 것이 낡고 구식이 되고 사라지고 그래서 다시 생산하는 산업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생산-소비-재생산 과정을 말한다. 르페브르는 이러한 과정은 기본적으로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며 늘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게 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반복을 마치 변화처럼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합리적 반복은 그 속도(speed)를 점점 빠르게 한다. 르페브르는 이것은 변화가 아니라 “변주(variation)”라고 설명한다. 르페브르는 근대 일상은 이렇게 각기 다른 순환과 속도가

엷혀 있음에도 근대인이 합리적 반복, 즉 생산-소비-재생산의 반복에 압도되어 점점 더 그 속도를 높이면서 일상에서 멀어지고 있는 자연적 순환을 알아채지 못하거나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한다 (Lefebvre and Levich 1987).

로자가 주목한 현제가 점점 줄어 드는 느낌과 르페브르가 표현한 속도만 변하는 변주 같은 일상과 비슷한 맥락으로 바우만(Zygmunt Bauman)도 근대 산업사회의 일(work)은 근대인을 바쁘게 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삶을 단순화시킨다고 주장한다(2005). 그는 임금 노동에 기반한 근대 산업사회를 정당화하는 일윤리가 지속적인 ‘리듬(rhythms)’ 즉 지속적인 생산 활동을 유지시키고 있다고 본다 (Bauman 2005). 그는 이러한 일윤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닌 ‘무엇을 할 것인가’ 즉 이미 정해져 있는 목표인 지속적 생산을 위한 수단과 행위만 생각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Bauman 2005). 로자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바우만이 문제시한 점은 기술의 가속 즉 목표 지향적 과정의 가속에 사람들이 보조를 맞추며 삶을 단순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로자, 르페브르, 바우만이 공통으로 비판하는 것은 산업사회의 사회적 가속이며 이러한 문제 의식에 기반하여 ‘왜 우리가 좋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고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로자가 지적한 근대의 가속화를 가능하게 했던 안정적 제도들이 더 이상은 기술과 사회변화의 가속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은 기술의 활용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스마트 도시 담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본적으로 스마트 도시 담론은 기술로 인간 행위에 개입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그러나 로자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술을 활용하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와 측정이 어려운 속도의 경험 즉 시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묻고 있다.

앞서 살펴본 인터뷰 내용, 즉 손수 요리한 음식을 먹고 야외에서

걷거나 운동하는 것이 삶에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시간 부족으로 인하여 규칙적으로 하기 어려운 것은 로자가 지적한 생활 속도 가속과 그로 인한 시간 궁핍 경험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도시 캠프’이 추구해야 할 ‘스마트함’은 기술(플랫폼, 연결망, 빅데이터, 인공 지능)을 활용하여 더 편리한 기반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뿐 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평범한 행위(식사, 잠, 산책, 놀이, 대화)에 더 오래 더 집중함이라고 제안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시간과 속도 경험을 개념화하고 지표로 변환하는 작업은 ‘슬로우 도시 (slow city)’ 운동에서도 시도되고 있다. 가령 다양한 속도와 리듬을 상징하는 ‘슬로우’를 개념화하고 슬로우 도시 현장문을 만들고 이에 따라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와 기준을 생성하는 것들이다(Mayer and Knox 2009). 식사, 잠, 산책, 놀이, 대화 등의 행위 단위에 사용되는 시간을 점점 늘리기 위해 ‘스마트함’은 또한 정치 참여, 노동 활동, 환경 보호에서 벌어지는 자원의 분배와 갈등을 기술을 통해 효율적이며 민주적으로 해결함을 의미해야 할 것이다(박배균 2020). 즉, ‘모두에게’ 시간을 벌여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서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마트 도시에 대한 단일 개념이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스마트 도시는 일반적으로 ICT를 이용한 디지털화를 강조한다.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은 ‘스마트 도시’ 구현에서 “디지털화(digitalization)”가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다(UNDP 홈페이지). 싱가포르의 ‘스마트 국가’ 비전도 디지털화를 핵심 목표로 한다. 디지털화가 스마트 도시의 핵심이라는 것은 데이터 생성과 활용이 스마트 도시 구현의 가장 기본이라는 의미이다. 사람들의 전반적 삶의 활동이 정보망을 통해 데이터로 수집되고 그 데이터들은 다시 가공되어 알고리즘 생성에 이용되고 이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플랫폼은 여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조정환 2021). 즉 스마트 도시는 데이터 없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데이터

의 원천적 정보는 “인간-비인간 객체들의 경험, 소통,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조정환 2021: 68). 그렇다면 정보망을 통해서 이러한 원천 정보가 수집될 때 무엇이 유의미한 데이터로 수집되고 있는지 수집된 데이터가 다시 가공되어 알고리즘을 계산할 때 어떤 데이터가 버려지고 취해지는지는 스마트 도시 구현의 중요한 문제이다.

‘도시 캠프’를 구현하는 작업은 진행 중이다. 필요한 데이터가 없으면 생성해야 하고,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 사회적 가속이 좋은 삶의 실현을 어렵게 만드는지 아니면 사회적 가속이 좋은 삶의 실현을 어렵게 만드는지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 유의미한 지표와 데이터의 성격이 달라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우만이 근대의 관성적 사고방식을 비판하면서 제안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질문하기가 필요하다(Bauman 2005). 그는 필요를 따져보는 가치를 추구하는 질문과 행위와 결과의 연관성을 고찰하는 규범적 질문을 함으로써 행위의 목표를 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Bauman 2005). 본 논문이 소개한 인터뷰 데이터는 궁극적으로 데이터의 데이터(메타데이터)로 가공될 것이다. 이러한 메타데이터를 매개로 사이버-물리 체제를 통합한 도시에서는 이동, 소비, 교육, 사회 서비스, 돌봄 등에 필요한 자원과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벌어들인’ 시간으로 시민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만남과 마주침이 공명하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캠프 정신을 부활시킬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벌어들인 시간을 다시 생산-소비-생산의 순환에 투자할 것인가?

## V. 맺음말

싱가포르의 ‘스마트 국가’ 비전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경제 성장 둔화에 대응하고 다민족 다문화 사회의 응집력을 결속하기 위해서 제안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저성장, 즉 ‘사회적 감속’을 도시 국가의 위기로 간주하고 사회와 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터뷰 자료에 의하면 사람들은 ‘생활 속도의 가속’을 느끼고 있다. 인터뷰 응답자들은 가족과 건강한 생활 방식이 일이 주는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고 정서적 위안감을 준다고 밝혔다. 그들은 일상에서 가족과 교류하며 느끼는 안정감과 위로, 직접 요리하고 먹고 몸을 움직이는 감각적 경험을 통해 건강함을 느끼는 것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으나 그러한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점을 토로하였다. 싱가포르 사회의 감속에 대한 두려움과 가속에 대한 피로함이 모두 관찰된다.

싱가포르의 ‘스마트 국가’는 국가 만들기를 넘어선 포스트-성장사회(post-growth society)의 성장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유엔개발계획과 공동으로 글로벌 센터를 세우고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한 모색 중의 하나로 싱가포르를 기술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혁신을 실험하고 검증할 수 있는 살아 있는 도시 실험실(living lab)로 삼았고 그 성과를 전 세계에 공유한다.<sup>28)</sup> 싱가포르는 늘 실용성을 추구해왔다(Ho 2017; Tan 2012). 싱가포르 시민들은 싱가포르를 ‘빨강고 작은 점(little red dot)’으로 부른다. 싱가포르의 물질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룩한 경제 사회적 성장과 안정에 대한 자긍심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들은 세계 경제 체제에서 생존하기 위해 전력 질주해야

28) <https://www.undp.org/sgtechcentre/smart-cities-1> (검색일:2022.9.24.)

하는 사회적 가속이 필요했음을 알고 있고 이러한 가속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 사회적 결속이 필요함도 알고 있으며 가속에 대한 사회적 피로감도 상당히 느끼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그 실현 방안으로서의 ‘스마트함(smartness)’은 싱가포르의 실용주의적 선택으로 보이며, 포스트-성장사회에 들어선 다른 도시와 국가에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이다. 사회적 감속에 대한 우려와 전망은 싱가포르의 여러 경제 사회적 정책을 통해 표현되어 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사회적 가속에 대한 분석과 대응은 활발하게 논의되지 않고 있다.

‘스마트 도시’라는 담론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에도 카스텔은 지표와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 자체가 공통의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작업임을 강조했다 (Castells 1983). 그런 의미에서 싱가포르의 도시 비전에 캠프가 등장하고 시민들이 그 비전에 반응하는 것은 ‘좋은 곳’에 대한 공통의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도시 캠프’이라는 융합 연구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작업 역시 스마트 도시의 기술적 실현이기도 하고 공통의 이해와 가치를 만드는 정치적 과정이기도 하다. 본 논문은 사회적 과속과 삶의 질을 논의함으로써 시간의 경험도 삶의 질 연구의 지표와 데이터가 되어야 하며 공간 위주로 지표와 데이터를 만들어 왔던 도시 비전도 속도와 리듬의 경험을 스마트함(smartness)의 구현에 담아내길 제안한다. 이는 ‘도시 캠프’를 상상하고 구현하는 작업이 거친 실용주의(vulgar pragmatism)가 아닌 비판적 실용주의 (critical pragmatism)가 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김한준. 2017. “스마트시대, 도시계획의 확장 및 전환.” 『공간과 사회』 59: 86-127.
- 박배균. 2020. “스마트 도시론의 급진적 재구성: 르페브르의 ‘도시혁명’론을 바탕으로.” 『공간과 사회』, 72: 141-171
- 박준, 유승호. 2017. “스마트시티의 함의에 대한 비판적 이해: 정보통신기술, 거버넌스, 지속가능성, 도시개발 측면을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59: 128-155.
- 조정환. 2021. “인지자본주의 시대의 인공지능과 인지노동.” 『문화과학』 105: 53-76.
- 하르트문트 로자. (김태희 옮김) 2020. 『소외와 가속: 후기 근대 시간성 비판』. 서울: 알피.
- 이매뉴얼 윌러스틴. (유희석 옮김) 2004. 『지식의 불확실성』. 서울: 창비.
- Ahas, Rein. et al. 2015. “Everyday Space-time Geographies: Using Mobile Phone-based Sensor Data to Monitor Urban Activity in Harbin, Paris, and Tallinn.” *International Journal of Geographical Information Science* (29)11: 2017-2039.
- Angelidou, Margarita. 2015. “Smart Cities: A Conjunction of Four Forces.” *Cities* 47: 95-106.
- Anthopoulos, Leonidas. 2016. “Smart Utopia vs Smart Reality: Learning by Experience From 10 Smart City Cases.” *Cities* 63:128-148.
- Barns, Sarah. 2018. “Smart Cities and Urban Data Platforms: Designing Interfaces for Smart Governance.” *City, Culture*

*and Society* 12: 5-12.

- Bauman, Zygmunt. 2005. *Work, Consumerism and the New Poor*.  
Maidenhead: McGraw-Hill Education.
- Brenner, Neil and Nik Theodore. 2002. *Antipode* 34(3): 349-379.
- Campbell Angus, Philip E. Converse and Willard L. Rodgers. 1976.  
*Quality of American Life: Th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Castells, Manuel. 1983. “Crisis, Planning, and the Quality of Life:  
Managing the New Historical Relationships Between Space  
and Society.”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1): 3-21.
- Carvalho, Luís. 2015. “Smart Cities From Scratch? A Socio-Technical  
Perspective.” *Cambridge Journal of Regions, Economy and  
Society* 8(1): 43-60.
- Centre for Liveable Cities. 2014. “Singapore’s Evolution Into a Smart  
Nation.” CLC Lecture Series Singapore.
- Chang, Sishir. 2000. “A High-Rise Vernacular in Singapore’s Housing  
Development Board Housing.” *Berkeley Planning Journal* 14  
(1).
- Cho, Mihye., et al. 2018. ““Small Places” of Ageing in a High-Rise  
Housing Neighbourhood.” *Journal of Aging Studies* 47:  
57-65.
- Chong, Keng Hua. 2018. “Reclamation of Urban Voids and the  
Return of the “Kampung Spirit” in Singapore’s public  
housing.” Chong Keng Hua. and Mihye Cho (eds.), *Creative  
Ageing Cities*. Routledge: 19-46.
- Chua, Beng-Huat. 1997. *Political Legitimacy and Housing:*

- Stakeholding in Singapor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Cocchia, Annalisa. 2014. "Smart and Digital City: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13-43.
- Giffinger Rudolf, et al. 2007. *Smart Cities: Ranking of European Medium-Sized Cities*, Centre of Regional Science.
- Glaeser, Edward L. and Christopher R. Berry. 2006. "Why Are Smart Places Getting Smarter." *Rappaport Institute/Taubman Center Policy Brief 2*.
- Granier Benoit and Kudo H. 2016. "How Are Citizens Involved in Smart Cities? Analyzing Citizen Participation in Japanese 'Smart Communities.'" *Information Polity* 21: 61-76.
- Grossi, Giuseppe and Daniela Pianezzi. 2017. "Smart Cities: Utopia or Neoliberal Ideology?" *Cities* 69: 79-85.
- Gieryn, Thomas F. 2000. "A Space for Place i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1): 463-496.
- Hampton, Keith N. 2017. "Studying the Digital: Directions and Challenges for Digital Methods." *Annual Review of Sociology* 43: 167-188.
- Hee, Limin and Giok Ling Ooi. 2003. "The Politics of Public Space Planning in Singapore." *Planning Perspectives* 18(1): 79-103.
- Ho, Kong Chong and Vincent Chua. 2018. "The Neighbourhood Roots of Social Cohesion: Notes on an Exceptional Case of Singapore." *Environment and Planning C: Politics and Space* 36(2): 290-312.
- Ho, Ezra. 2017. "Smart Subjects for a Smart Nation? Governing (Smart) Mentalities in Singapore." *Urban Studies* 54(13):

3101-3118.

- Hoe, Siu Loon. 2016. “Defining a Smart Nation: the Case of Singapore.” *Journal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Ethics in Society* 14(4): 323-333.
- Hollands, Robert G. 2015. “Critical Interventions into the Corporate Smart City.” *Cambridge Journal of Regions. Economy and Society* 8(1): 61-77.
- Hollands, Robert G. 2020. “Will the Real Smart City Please Stand Up?: Intelligent, Progressive or Entrepreneurial?” in *The Routledge Companion to Smart Cities*. Routledge: pp. 179-199.
- Jie, Woo Jun. 2017. “Singapore’s Smart Nation Initiative-a Policy and Organisational Perspective.”
- Kitchin, Rob. 2015. “Making Sense of Smart Cities: Addressing Present Shortcomings.” *Cambridge Journal of Regions, Economy and Society* 8(1): 131-136.
- Lefebvre, Henri and Christine Levich. 1987. “The Everyday and Everydayness.” *Yale French Studies* 73: 7-11.
- Mayer, Heike and Paul L. Knox. 2009. “Pace of Life and Quality of Life: The Slow City Charter.” in *Community quality-of-life indicators: Best cases iii*. Dordrecht: Springer: 21-40.
- Nallari, Anupama and Ate Poorthuis. 2021. “Rethinking ‘Kampung’ or ‘Village’ in the (Re) Making of Singapore and Singaporeans.” *Singapore Journal of Tropical Geography*, 42(3): 431-450.
- Parkins, Wendy. 2004. “Out of Time: Fast Subjects and Slow Living.” *Time & Society* 13(2-3): 363-382.
- Peck, Jamie and Adam Tickell. 2002. “Neoliberalizing Space.”

- Antipode* 34(3): 380-404.
- Pink, Sarah. 2009. "Urban Social Movements and Small Places: Slow Cities as Sites of Activism." *City* 13(4): 451-465.
- Rosa, Hartmut. 2003. "Social Acceleration: Ethical and Political Consequences of a Desynchronized High-Speed Society." *Constellations* 10(1): 3-33.
- Rosa, Hartmut, Kalus Dörre and Stephan Lessenich. 2017. "Appropriation, Activation and Acceleration: The Escalatory Logics of Capitalist Modernity and the Crises of Dynamic Stabilization." *Theory, Culture & Society* 34(1): 53-73.
- Seik, Foo Tuan. 2000. "Subjective Assessment of Urban Quality of Life in Singapore (1997- 1998)." *Habitat International* 24(1): 31-49.
- Shelton, Talyor, Matthew Zook and Alan Wiig. 2015. "The 'Actually Existing Smart City.'" *Cambridge Journal of Regions, Economy and Society* 8(1): 13-25.
- Tan, Kenneth Paul. 2012. "The Ideology of Pragmatism: Neo-Liberal Globalisation and Political Authoritarianism in Singapore."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42(1): 67-92.
- Tan, Soo Juan, Siok Kuan Tambyah and Ah Keng Kau. 2006. "The Influence of Value Orientations and Demographics on Quality-Of-Life Perceptions: Evidence From a National Survey of Singaporeans." *Social Indicators Research* 78(1): 33-59.
- Tambyah, Siok Kuan and Soo Juan Tan. 2018. *Happiness, Wellbeing and Society: What Matters for Singaporeans*. Abingdon, New York: Routledge.

- Teo, S. E., & Kong, L. 1997. “Public Housing in Singapore: Interpreting “Quality” in the 1990s.” *Urban Studies* 34(3): 441-452.
- Yuen, Belinda. 2018. “Singapore: Smart City, Smart State by Kent E. Calder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16. Pp. 233. Appendix, Notes, Bibliography, Index.”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49(2): 349-351.
- Yeoh, Brenda SA and Lily Kong. 1995. “Portraits of Places: History, Community and Identity in Singapore.” *Research Collection School of Social Sciences*. Paper 1833.
- Wright, James D. 1982. “The Quality of Life: Comparative Studies by Alexander Szalai and Frank M. Andrews.” *Contemporary Sociology* 11(1):78-79.

(2022.10.04. 투고, 2022.10.16. 심사, 2022.11.22. 게재확정)

<Abstract>

## ‘Smart Nation’ and ‘Social Acceleration’ : Imagining ‘Urban Kampung’ in Singapore

Mihye Cho  
(Sungkonghoe University)

This paper discusses the significance of ‘social acceleration’ in imagining ‘smartness’ by examining the Singapore governmental vision, ‘Smart Nation’ and its subsidiary research project ‘New Urban Kampung’. The Housing Development Board has planned to collect the data about population, work, leisure, and urban infrastructures to create a platform to be used for public housing design. The Board, together with the private sectors comprising of university-affiliated research centers and enterprise R&D organizations, has conducted a research project, ‘New Urban Kampung’ to utilize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designing public housing. The project is a part of the ‘Smart Nation’ vision, which has been launched in 2014. It provides a grant narrative to illustrate a Singaporean way to make ‘smart city’. Its outcome will be utilized for future public housing design. The author participated in the project between 2017 and 2019. This article thus aims to discuss important implications induced during the study rather than examine the feasibility of particular policies. Specifically, the author discusses first why public housing estates are regarded as a crucial place

to reproduce a Singaporean way of life; second, the content of ‘Smart Vision’; third, the experience of ‘accelerating time’ drawn from the interviews with public housing estates residents. The paper puts forward the notion of time, which has been rarely discussed in the smart discourses. Thereby it explores the Singaporean responses and challenges to cope with post-growth society.

**Key Words:** Singapore, Smart Nation, Social acceleration, Urban Kampung

